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존경하는 동료 교수의 번역서 출간을 기념하는 작은 모임에 다녀왔다. 광주 의 어느 독립서점에서 마련된 소박한 자리였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예정된 여러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지 않은 인원이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견제함 그 자체가 주는 작은 감동이 있었다. 수년 전 책의 번역 초고를 제자들과 매주 그곳 독립서점에서 함께 읽었다는 사연을 담은 그의 짧은 출간 소감 역시 마음을 울렸다. 작은 만남들에 의해 의미화 되고 역사화 되는 장소들, 만남이 꺼려지는 요즈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다.

이날의 책은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 고전 텍스트를 라틴어 대역으로 꼼꼼하게 한글로 옮긴 노작(勞作)이었다. 페이지

신체의 변용과 낙(樂)

를 넘기는데 본문의 첫 단어가 라틴어 '아펙투스'(affectus)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감성 연구' 분야에서 부각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펙투스'는 책에서 '정서'(情滯)라는 말로 번역돼 있었지만 영어 단어 '어펙트'(affect)가 그렇듯 그 문자적 의미는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은 이성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몸의 변화, 신체의 '변용'(變容)과 관련된 감성적 차원의 것이다. 이날의 출판 기념 모임이 내게 준 긍정적 '영향' 또한 무엇보다 내 몸이 밝고 즐거운 정서 상태로 '변용'되었다는 것에 있었다.

물론 정서적 영향이 늘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서적 소통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데 파편화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서로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확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하지만 모든 적대와 경쟁이 사라진 이상적 공동체를 그려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밝고 즐거운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은 자칫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무력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오래 전 유교 문화의 선조들은 '예'(禮)와 더불어 이원적 개념으로 설정한 '악'(樂)이라는 단어 속에 이 질문과 대답을 담아 두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음악'(音樂)이라고 부르는 대성이나 행위와 관련된 전반적 웰빙 넓은 개념적 맥락 속에 있다. 요컨대 '악'은 자신의 삶을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예술화하는 심미적 대화의 기술이자, 그러한 대화를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즐거움(낙)이며 신체의 긍정적 변용이다.

비관적이고 때론 섬뜩하기까지 한 뉴스를 넘겨치거나 요즈음,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빠져 있는 듯하다. 며칠 전 무의식적으로 그 집단적 우울감에 젖어 있던 내가 한 순간에 긍정적 정서로의 신체 변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 대학원 후배인 동료 학자로부터 정성을 들인 SNS 초대장이 전해진 순간이었는데, 그가 포함된 아마추어 기타 중주단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한

다는 내용이었다. '연주는 잘 못하는 게 함정'이라는 진담 섞인 농담도 볼 수 있었다. 웹 포스터 표지의 아름다운 기타 그림은 뜻밖에도 중주단 멤버인 일부의 아이들이 그려 준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쩍 불안정해진 대학 강사 생활 중에도 한결같이 자기 삶의 '낙'을 찾아가는 그와 그의 음악 친구들의 긍정적 에너지에 나는 쉽게 공명(共鳴)했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멀리 서울에서 열리는 음악회라 참석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바쁜 일상 너머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 소식은 이미 내게 감동과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상 너머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거는 심미적이고 대안적인 대화들이 우리의 삶을 예술적으로 만든다. 어두운 터널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주변의 소박한 장소들에서 혹은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서로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 수 있기를, 그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 '정서'를 전달하고 심미적 대화의 '낙'(樂)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양산되기 전까지 그것이 우리 신체를 변용시키는 최선의 백신이 아닐까.

꿈꾸는 2040

'낭랑 18세' 선거권 확대와 생애 첫 투표



이재웅
위안연구원 이사·광산구 청소년수련관장

3 학생들에게 부여되는데 공부에 지장이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은 이미 충분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결코 어리지 않다'는 긍정론도 있다. '일제 강점기하의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 광주민중항쟁 등에서 학생들이 했던 역할을 보면 역사가 이들 증명한다'면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여러분이 어떤 주장에 동의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모든 법과 제도, 정책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투쟁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시대에나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자(보수)와 바꾸려는 자(진보)는 존재하였고 둘 중 어느 한 편이 모든 것을 장악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 양 세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온 국민에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권력 획득) 노력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보며 정치를 욕하고 정치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쁜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만의 몫은 아니다. 그 상당 부분은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 한 표, 개개인에게는 한 표이지만 그 한 표들이 모여 지금의 정치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선거날 한 표 행사했으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미세먼지 대책)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며, 이는 행정에서 정책으로 생산되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기억하고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일에 는 청소년 유권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꼭 투표장으로 향하기를 기대해 본다.

있을 때 물릴 방법도 딱히 없고 우리가 침묵해도 알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지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혁명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정치는 결국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8세 선거권 확대를 통해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유권자들과 이미 유권자였던 시민들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정치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한 공기에 대한 정책(미세먼지 대책)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며, 이는 행정에서 정책으로 생산되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기억하고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일에 는 청소년 유권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꼭 투표장으로 향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언니의 크나큰 사랑



조귀임
전 초등학교사

로 내려갈 땐 형부랑 신문사 동료이고 교육장님 형님이신 분이 승용차로 관사까지 나를 데려다 주셨다. 다음날에는 교육장님께서 나를 학교까지 직접 태워다 주셨다.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 오면 언니는 나를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겨 주고 총장으로 양장점에서 옷도 맞춰 주고 머리도 다듬어 줬다. 덕분에 나는 세련된 멋쟁이가 되었고, 해마다 학교 운동회날은 형부랑 언니가 그 먼 길을 승용차로 내려오셔서 신고 온 선물을 주시고 기도 살려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셨다. 형부께서는 날 무척 귀여워해 주시고, 칭찬으로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내가 언니 집에서 살 때 보람되고 자랑스런 일은 지금 의사인 언니 큰 딸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졸업 때까지 날마다 기초 학습부터 심화 학습까지 전과목을 반복 지도한 일이다. 책도 많이 사 주고 독서 지도, 글쓰기 지도에 심혈을 기울였더니 글쓰기, 말하기 능력도 탁월했다.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라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더니 오래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국내 유일한 성의학자로, 명성 높은 의사로 활약 중이다.

우리 형부는 지병인 결핵을 앓던 중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드셨지만 당뇨까지

걸쳐 간간히 피를 토하셔서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 딸이 여러 병원에 예약을 해 놓았지만 끝내 병원에 가지지 않고 운명의 날을 맞고야 말았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 음력 5월 8일 토요일 저녁 무렵 언니가 숨 넘어가는데 목소리로 "네 형부 돌아가셔야. 빨리 와라!"고 전화를 했다. 이웃에 사는 언니네 집으로 정신 없이 달려갔더니 형부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 안절부절 허둥대다가 집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손살같이 달려와서 의식이 없는 형부를 큰길까지 등에 업고 가서 구급차로 전대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사들이 몰려와서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했지만 좀처럼 의식이 깨어나질 않아 우리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다. 병원차로 형부 시신을 신고 독서 지도, 글쓰기 지도에 심혈을 기울였더니 큰 충격을 받고 혼비백산했고 언니는 눈물마저 메마른 채 망연자실하였다.

언니가 우울증에 걸릴까봐 한 달 이상을 학교 퇴근 후 언니네 집으로 가서 밥도 차려 주고, 간식도 챙겨 주고 청소도 하면서 위로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 주었다. 큰 딸은 의사와 작은 딸은 보건

소에 근무했지만 2남 2녀 모두 결혼도 안 했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다.

갑자기 하늘 같은 아빠를 여윈 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고 사무치게 그리워서 속울음을 터트렸을까 안스럽고 짠하다. 그래도 뼈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잘 성장해 주셔서 고맙기만 하다.

아버님 기일이나 명절 때면 엄마를 모시고 성묘하러 온 효자들이다. 생활력 강한 언니는 음식점을 하면서 두 아들을 대 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모두 잘해서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런 호강 받을 일만 남았는데 2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

팔손이 넘은 우리 언니는 나보다 전화를 자주 하는 살가운 본인대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전화를 못하시다가 내가 전화하면 "세상에 돌도 없는 내 동생인가!"라며 반색을 하신다. 내겐 세상에 돌도 없는 엄마처럼 소중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 한 여생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언니를 애지중지하셨던 우리 형부! 백년해로 못다 하고 가셨지만 언니가 형부 뒤통까지 오래 오래 사시도록 지켜 주실게요?

社說

코로나 확산 '신천지' 측 협조 절실하다

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어제부로 600명을 돌파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동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발동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어제와 그제 연이어 일일 확진자가 2백 명선을 넘어서는 등 통제 불능 사태로 확산되자 결국 '심각' 발령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에 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 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를 포함 전국에서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천지 광주교회 관계자 역시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압박 받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모든 교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다.

하지만 신천지 교인이나 그들의 가족 또는 주민들의 대응적인 제보만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신도 세 명을 포함해 광주 지역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는 일곱 명으로 늘었다. 따라서 신천지 측은 앞으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양군 공무원 해외연수 전면 중단했지만

담양군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역대 최대의 예산을 들여 전체 직원의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담양군은 최근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국의 선진지 산업 시찰'을 추진하고자 했다. 선진국의 행정 제도와 생활 인력, 관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시책을 군정에 접목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코로나 사태 진전 상황을 감안해 대나무 축제가 끝난 뒤 5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했다.

담양군은 이를 위해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인당 지원금은 중국·일본·동남아(5일 이내) 등은 80만 원, 미주·유럽·호주·뉴질랜드(9일 이내) 등은 120만 원이다. 다만 2017년 이후 국외 산업 시찰을 다녀왔거나 근무 1년 미만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은 당초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시찰 팀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직원 대상 복지 차원의 해외 연수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선심상·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대상 지역에 중국·일본·동남아 등 코로나 감염 지역까지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한 광주일보의 문제 제기 이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담양군은 공무원 해외 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지난해 한일 무역 전쟁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지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 경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설사 해외 연수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바이러스 확산에 초긴장하고 있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無等鼓

검은 벨벳으로 만든 가면(mask)을 쓴 루이14세는 바스티유 감옥 벨트디엘 탑 3층의 한 감방에 도착했다. 작은 감방 구석에 놓인 침대에는 철가면을 쓴 남자가 베개에 머리를 대고 축 늘어져 있었다. 가면은 얼굴 전체를 폭 뒤덮고 있었고 그것을 벗기기 위해선 열쇠가 필요했다. 가면의 눈과 코 부분엔 작은 구멍이 나 있어, 보거나 숨 쉬는 데는 그런대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 양쪽 귀가 있는 부분에도 작은 열쇠 구멍이 있어서 가면의 턱부

였던 당시에야 쇠나 벨벳으로 만든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소품이 없었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비가 되었고, 이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황금 마스크'가 되어 버렸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철가면

분을 벗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서 죄수를 바라보던 왕은 말했다. "이것이 철가면

막상 시내 약국이나 편의점, 할인점에선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정부

말가? 끔찍하군, 너무 끔찍해."

관계자들이 방송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마스크가 났냐?"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프랑스 소설가 부아고베가 실제 철가면을 쓴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쓴 인기 소설 '철가면'에 나오는 내용이다. 소설에서 루이14세의 쌍둥이가 쓰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 이 철가면은 실제로는 항상 착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는 감방에서 맨 얼굴로 지내도록 했다가 신분 노출이 우려되면 검은 벨벳으로 된 마스크를 먼저 씌운 뒤 쇠로 된 가면을 덧씌웠다고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와 지역 사회 방역에 '올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마스크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다가 집에서 벨벳으로 된 마스크라도 만들어 써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할 따름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